

# 포도주관련 산업정책 현황

## 1. 서 론



**고 경 희**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 교수〉

과실주 시장으로 포도주, 사과주 등 모든 과실로 술을 빚을 수는 있으나 세계 과실주 시장의 생산주종은 역시 포도주이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포도주의 경우 생산량은 극히 불규칙적이다. 세계 포도주 생산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에서 세계 포도주 생산량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어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지역 포도주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온 미국이 포함된 아메리카가 14.4%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주 생산량을 주요국가별로 살펴보면 포도주 생산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가 199년대 6,500만 헥터리터를 생산해 2위인 이태리를 600만 헥터리터를 앞서고 있으며 그 뒤에 크게 떨어져 스페인, 아르헨티나가 3,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포도주 생산량 증가율을 보면 우루과이가 109%의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률 부문에서 비록 5위에 그쳤지만 양적인 면에서 급성장을 한 호주가 잠재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기후, 토지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잠재력을 키워오고 있다.

■ 目 次 ■

1. 서 론
2. 보르도 포도주 협회(CIVB, Conseil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Bordeaux)
3. 캘리포니아 포도주협회(Californian Wine Institution, CWI)
4. 일본의 포도주 협회
5. 한국의 포도주 산업
6. 결 어

## 2 보르도 포도주 협회(CIVB, Conseil Interprofessionnel du Vin de Bordeaux)

보르도 포도주 협회는 포도주 제조업자이면서 도매업자인 Fernand Ginestet의 제안으로 1914~1918년 전후에 설립된 “보르도 포도주 유통 및 제조연합”을 그 기원으로 한다. 세계 제2차 대전 후 보르도 포도주의 주산지인 지롱드 지역의회의 인준을 거쳐 공공단체인 보르도 포도주 협회로 1948년 8월 18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세가지 주요임무는 i) 보르도 포도주 시장의 조직과 구조, 시장 동향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수집분석, ii) 국내의 시장에서의 보르도산 고급포도주(AOC급) 수요와 명성 창출, iii) 원산지 규칙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통해 상표에 일치하는 품질의 보르도산 포도주를 소비자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보르도 포도주협회는 비상근 조직인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사업분과 위원회, 주류분과위원회와 상근조직인 협회사무국(CIVB)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의 사업분과 위원회는 경제분과, 판매촉진분과, 기술분과 등으로서 조직의 임무와 관련된 제안사항들을 만들고 연구하는 것을 책임진다. 사업분과위원회와는 별도로 주류별로 주류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주류분과위원회는 보르도산 포도주의 주요품종(Crû)별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활동은 i) 예산구조 : 예산편성,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보르도산 포도주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협회 지출예산의 83%가 각종사업비로 배정되었으며, 그중 2/3가 넘는 예산이 판촉 및 마케팅 비용으로 책정되고 있다.

ii) 연구 및 기술개발지원 : 고급포도주 품질연구 및 기술개발지원 부문에 대한 협회활동의 두가지 주요 분야는 보르도 포도주의 상대적 우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과 포도주 원료에 대한 신뢰가 국제적인 보증서와 같이 통용될 수 있도록 보르도 포도밭 경작

및 양조(Viti-Vinicole)에 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는 것 등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Institut d'oenologie(포도주 연구소)를 들 수 있으며 Bordeaux 대학에서 많은 연구 및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iii) 품질관리는 판매점 통제를 위한 품질관리와 수출용 포도주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판매점 통제를 통한 품질관리는 1983년 이래로 협회에 의해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판매점 통제는 최상의 소비자 만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르도 포도주의 완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CIV의 기술부는 벨기에 2개, 프랑스 국내에 8개 등 대규모 소비시장에 대해서 매년 10번 정도 표본을 수집해서 이를 검사한다. 표본시험용 포도주는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점에서 무작위 추출되어 판매점에 관한 제반 정보들과 해당 포도주 가격, 포도주의 상태, 포도주의 사입처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상황설명서와 함께 CIVB에 보내진다. 표본시험용 포도주는 각각 두병씩 추출되는데, 두 개의 표본중에서 한병은 시음용이고 다른 한병은 분석용으로 사용된다.

모든 감정은 보르도 포도주 전문가들(생산업자, 도매업자, 중개인, 기술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종합적으로 시행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보다는 그들이 평가하는 것이 더 엄격하며, 질적인 수준이 불충분한 품질, 표준적인 품질, 매우좋은 품질 등 3가지 범주로 이들 포도주들을 분류한다. 감정이 끝난 후에 표본 수집 사실과 포도주의 감정결과를 봉합편지로 작성하여 회원사인 생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예를 들어 1999제조년도에 따른 표준적인 품질수준을 나타냄과 아울러 해당년도 포도주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CIVB에서 추출된 표본이 감정위원회에서 결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 해서 해당품목이나 보르도 포도주 생산전체를 문제시 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서 CIVB가 직접 개입해서 직권으로 모든 것을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

수출용 포도주의 품질관리는 1993년 1월 1일 유럽공동체내에 새로운 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유럽 국가간의 상품이동에 있어 국경의 물리적인 장애요인이 제거되므로해서 수출증서가 필요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통제 역시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단지 미국시장의 수출용 보르도 포도주의 경우에는 필요한 품질확인 증명서(le certificat de conformité)를 발부하게 되었다.

iv) 대외관계로 CIVB는 협회와 대외 기관과의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회가 운영하는 자료센타를 통해 지역정보를 발간 배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유관자료(연구서적, 학위논문, 국가 및 공동체의 법률적 정보, 사진자료, 영상자료, 정기간행물 발행등)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언론사(정보지원, 언론활동, 특종보도, 뉴스레터)와 소비자 단체 및 기타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유대강화(포도주 사업관련자 초청, 관광객을 위한 접견실 설치 운영)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3. 캘리포니아 포도주협회 (Californian Wine Institution, CWI)

캘리포니아 포도주 산업의 효시는 1769년경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Thomas Jefferson이 Monticello지역에 처음 시험적으로 포도나무 묘목을 심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Junipero Serra 신부가 캘리포니아 서부해안에서 포도주 산업을 시작한 것이다. Serra신부는 오늘날 San Diego에 해당하는 지역에 정착하면서 선교활동을 전개하였고 21개의 선교단을 만들어 캘리포니아 해안을 오르내렸다. 이때 심은 포

도씨앗과 포도묘목이 오늘날 캘리포니아 포도주의 기원이 된 것이다. 처음 이 지역 사람들은 미사에 사용할 것과 집안에서 사용할 소량의 포도주를 생산하였다. 1883년 Mexico정부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선교활동을 금지시킴에 따라 이곳에 정착했던 선교사들이 두고 떠난 포도밭에 캘리포니아 최초의 포도주 양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19년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 생산지역이 되었는데 불과 1년 후 주류양조 및 판매 금지법 제정으로 인해 포도주 산업의 성장이 중지되었다. 당시 캘리포니아 포도주 생산업자들은 그들의 포도주 시장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위해 주 전체 포도주제조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결과 1934년 캘리포니아 포도주 협회가 창립되게 되었다. 오늘날 CWI는 캘리포니아 포도주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업체 개별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종합적인 제품개발, 시장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조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조직의 목표는 1934년 설립 당시와 같이 새로운 시장개혁, 주세 등 관련 세금부담 경감, 소비자 및 유통업자교육, 품질개선, 산업체 협력체제 구축 등 변함이 없으나 그 실천 방법은 나날이 달라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포도주 산업 관련업자 575개사들을 회원사로 하면사 Sacramento, New York, Washington DC 등 6개 지역본부와 8개국에 지사망을 두고 있고 Sanfrancisco에 본부를 둔 포도주협회의 정책과 활동은 100개 이상의 회원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감독된다. 20개의 전문분야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해당분야의 협회 정책 결정의 방향이나 사업실행 프로그램을 만든다. 운영위원회의 종류를 보면 지역관계위원회, 경제연구위원회, 포도와 포도주 품질위원회, 건강과 사회연구위원회, 국제무역위원회, 포장연구위원회,

무역장벽위원회, 포도재배 연구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회는 매달 뉴스레터, 각종위원회 모임 또는 여러 가지 간행물 등을 통해서 협회 회원들에게 업무 추진내용을 전달하고 회원사들이 사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갖고 있다. 협회활동의 주요 재정을 여러개의 연방이나 주정부기관으로부터 주어진 프로그램 지원금과 회원들의 회비에서 충당하고 있다.

주요활동 i) 포도주에 대한 효용과 알코올 문제 인식제고로 포도주 산업은 잠재적인 알콜남용 문제를 인식하고 일련의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포도주 산업은 음식과 포도주를 절제해서 마시고 책임성 있는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ii) 포도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적 연구 투자, 경제연구, 기술연구 위원회, 대중교육프로그램으로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산업환경에 맞는 포도주 생산, 포도주 품질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University of Fresno 대학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American J. of Enology and Viticulture 학회지에서 포도 및 포도주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외관계활동은 대외 간행물제작, 특별프로그램(시음회, 포도주 사절단, 포도주 교육과정)들 두어 포도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 4. 일본의 포도주 협회

일본의 주류 산업관련 협회는 주류업 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임의단체로 구성된 조합들로 크게 나눌수 있다. 주류업 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는 제조업 부문에 일본양조조합중앙회, 일본증류주조조합 등 4개의 전국단위조합이 있다. 일본주조조합중앙회 산하에는 국세국

또는 도도부현단위별로 25개 주조조합연합회, 22개 주조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세무서 단위별로 177개 주조조합이 있다. 도매업 부문에도 주류업조합법에 의한 전국도매주판조합중앙회, 맥주도매주판조합중앙회 등 전국단위조합 2개와 산하 국세국 또는 도도부현 단위별로 여러개의 조합들이 있다. 일본 주류업조합법에 의한 조합중 다른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국소매주판조합중앙회이다. 이 전국소매주판조합중앙회 산하에는 도쿄 1, 그리고 도부현단위 46개의 연합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49개 소매주조조합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주요 임의단체로는 일본양주수입협회등 일본과실주협회, 전국미립협회 등이 활동 중이다. 과실주는 전국단위로 일본양주주조조합에 속하며 포도주는 야마나시현의 야마나시 과실주조조합에서 다루고 있다. 일본의 야마나시대학을 중심으로 The Institute of Enology and Viticulture 에서 포도주 관련 기술 및 학술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Enology and Viticulture, Japan Chapter 학술지를 미국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선진화하고 있다. 47개 포도주 관련업체를 산업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발표내용 분야는 주로 포도 품종육종개발, 포도재배기술, 포도성분연구, 포도주발효학, 포도주와 건강 관련에 관한 연구이다. 야마나시대학은 포도육종시험지, 포도주 제조공장을 갖추고 박사학위도 수여하며 꾸준히 포도주 산업에 이바지할 전문인 양성을 하고 있다. 그의 지자체 중심의 포도주 생산지로 일본 북해도 이케다쵸의 이케다쵸포도·포도주 연구소가 있으며 토카치와인은 일본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체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조장으로 1997년부터 이익금의 10%를 지자체에 환원하고 있다. 야나시현을 중심으로 일본의 와인회사가 있으며

야마나시의 포도주 제조 역사는 130년의 역사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앞으로 와인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노력을 하고 있다.

## 5. 한국의 포도주 산업

한국의 포도는 최근 몇 년사이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생식용 포도는 포도재배 기술도 많이 향상되고, 다양한 품종이 도입되고 개발되었으며 또한 재배기술도 크게 향상돼 시설재배가 정착되고 있으며 고품질의 포도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도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25만톤을 훨씬 초과하여 포도 생산능가에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포도 가공이 대부분주스에 집중되어 장래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래는 음주문화의 지구촌화로 포도주의 소비가 증가할 추세를 가지고 있어서, 포도가공은 소비량이 최대가 될 포도주로 포도 잉여량에 대한 적정가공 방법을 개발하여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선 한국의 포도주 분야 산업 전문인력이 미비하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꾸준히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 인력을 보내 기술을 통한 포도주 산업 전문가 양성을 해왔으며, 지금은 포도주를 통한 식생활 문화의 변화, 관광사업과 함께 발전하여 지역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국내 포도주 소비량을 보면 프랑스의 일인당 67리터에 비하면 1/500 수준을 밑돌고 있고 생산량도 일본의 5,500만 리터에 비하면 1/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년간 일인당 포도주 소비량이 미국은 5리터, 일본은 2리터 정도이나 일본의 경우 힘 안들이고 5리터까지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열악한 자연조건에서도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기술 연구에 열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도품종 육종개발 기술, 포도주 관련 전문인의 부족으로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포도주 수입 소비국으로 포도농가의 고사와 막대한 외화 소비의 악순환으로 포도주 산업은 희생불가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본다.

포도주는 농산물의 가공품으로 선진국에서는 식품의 일부로 취급하여 포도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포도와 관련된 기관이 맡고 있다. 영국은 농수산식품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프랑스는 농수산식품원예국, 독일은 농림식품부 식품국에서 포도주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국세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여 기술 산업적인 지원이 전혀 없으며 국세청산하 주류기술연구소를 통한 포도농가 및 포도주 산업의 기술적 지원 등이 원활하지 않고 대학 및 연구소에 분야 연구지원도 거의 전무하여 우리나라 포도주 산업발전이 포도농가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외화유출, 외국산 포도주의 소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각국의 포도주는 식음료법으로 육성되고,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세법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영국의 포도주 산업은 식품안전법과 포도주법 그리고 도량형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프랑스는 음료 및 주류에 관한 도량형법, 독일은 포도주법, 도량형 등으로 통제하나 우리 나라는 주세법으로 포도주를 통제하고 있다. 포도에 못지 않게 산머루를 이용한 일본 북해도 이께다음의 Tokay wine은 30년의 포도주제조 역사로 지금은 관광객 60만이 방문하는 지역개발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포도를 이용한 포도주 산업을 대형화하여 알코올 주류산업으로 다루지 말고 학문적 연구, 국민 건강차원, 농촌경제 활성화, 문화 관광 차원에서 과학적 기술과 조화시켜 특화된 우리 나라 고유의 상

품으로 개발하여 물밑 듯 들어오는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본다.

## 6. 결 론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적포도주의 경우 심장병 등의 성인병 예방이나 항노화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포도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포도주에 관한 정규과정 교육코스가 국제화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도의 품질수준을 경제성 있는 방법으로 최고급화 생산으로 생과 용을 제외한 나머지 포도상품을 생산비 수준의 낮은 가격에 가공공장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포도주 상품을 개발하여 수입제품에 경쟁력을 가지면서 내수시장을 확대해 포도농가와 포도가공산업의 활성화가 연계된 바람직한 학문화, 과학화, 현대화된 포도주 산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정헌배 :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장기발전 전략에 관한연구, 사단법인 대한주류공업 협회(1994)
2. 황해룡 : 포도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창간호(7월호), 한국포도가공연구회 정보(1998)
3. 한국포도가공연구회 : 일본 북해도 포도주 주산지 시찰. 12월호, 한국포도가공연구회정보(1998)
4. 성창근 : 국산포도주, 새로운 가공방법 개발. 10월호, 한국포도가공연구회 정보 (1998)
5. 한국포도가공연구회 : 주류분야 규제개혁, 9월호, 한국포도가공연구회정보(1998)
6. ASEV 일본와인학회 : ASEV JAPABN 산업회우명부. J. ASEV Jpn.10(1):70 (1999)
7. 고경희 포도주의 건강기능적 특성. 식품 산업과 영양, 4(1)20-25(1999)

心曠則萬鍾如瓦缶，心隘則一髮似車輪。

마음이 넓으면 만종(萬鍾)의 녹(祿)도 질항아리와 같고, 마음이 좁으면 한개의 터럭도 수레바퀴와 같다.

- 菜根譚 중에서 -